

>> 1면 '美 의회 가상화폐 청문회'서 계속

“책임있는 정책으로 혁신 촉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국경이 없기에 한 국가의 규제 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다시 언급됐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락의 트리거(계기)가 한국 정부라는 지적도 담겼다.

독일 괴테 대학의 칼 스텐스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개입한 강력한 사례가 있다”며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를 거론했다. 한국 정부와 방향성은 다르지만 ‘디지털 국경’ 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당국은 투자자와 소비자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은 “투자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가상화폐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가상화폐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장은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워너 상원의원은 “가상화폐는 현대전 화처럼 발전할 수 있으며 미국인들은 가상화폐와 토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책임있는 정책으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가상화폐 롤러코스터 장세 7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빙벙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600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친 뒤 이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줄 News

- 정책·사회**
 -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2018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첫 적용된 결과, 영어 4등급으로 서울대 합격 사례가 나오는 등 대학별 영어 변별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행 폭로에 따라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폭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잇따르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 산업**
 - ▲ 넷마블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3N'의 독주 속에 '루키'로 떠오른 카카오게임즈가 개발 전문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를 출범하고, 캐주얼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선다.
 - ▲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물론 화학업계, IT업계도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 ▲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라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안정대출'을 공급한다.
- ▲ 사상 최대로 늘어난 레버리지 투자가 한동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 GS건설이 참여한 GS글로벌 컨소시엄이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 유통&라이프**
 - ▲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패션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 ▲ 신세계백화점이 다음 달부터 영등포·경기·광주점 등 3곳의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춘다.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 27.9%→24.0% 인하

위기의 저축銀... 대형사 위주 판도 재편

대형사, 새 수익원 마련 분주
소형업체는 수익 감소 불가피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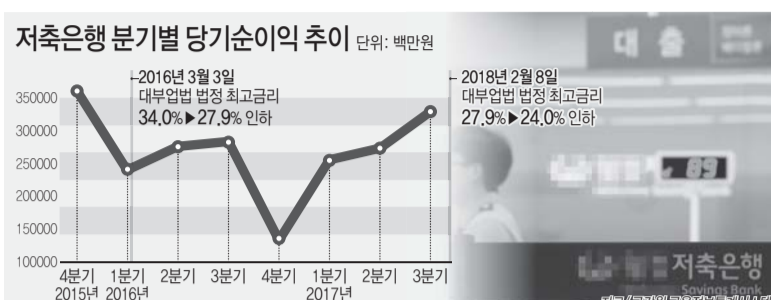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가 시행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 당국의 대출총량규제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까지 충족해야 돼 실적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높기 때문. 특히 소형 업체는 경우 별다른 돌파구가 없이 '3재(災)'와 맞닥뜨리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11면>

7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은 지난해 3분기 누적 817억2000만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매 분기 2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실적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가 대출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자산건전성 개선 등으로 흑자시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



런 실적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대부업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되자, 업권의 실적이 급속도로 빠졌다.

저축은행들은 최고금리 인하나 시행되는 직전 분기인 2015년 4분기에 3621억8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2016년 1분기 순이익은 2179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 3256억27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는 2분기(2566억2900만원)와 대비해 26.9%나 급증한 수치다. 최고금리 인상을 앞두고 적극적인 영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 업체들은 신용평가시스템

(CSS)을 고도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등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벌어지는 수익원도 줄게 된다. 대형 업체들은 다양한 영업을 시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반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소형 업체들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총량규제를 실시한 탓에 이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올해는 아직

대출총량규제 비율이 나오지 않았으나, 비슷한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당금 적립기준 강화도 걸림돌이다.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위험 가계대출(금리 20% 이상)에 대한 추가 총당금 적립을 시행했다. 올해는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총당금 적립률이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이문 55%, 추정손실 100% 등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업체와 중소기업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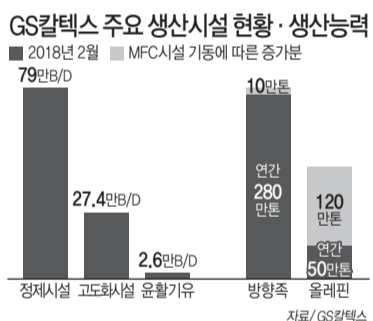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규모 3000억원 이하 소형저축은행 28곳의 당기순이익은 670억원으로 중·대형 저축은행 실적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물론 소형사보다 대형사들이 CSS 고도화 등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대형사들도 새로운 수익원 마련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GS칼텍스 '올레핀 설비'에 2조 투자... 고부가사업 다각화

여수에 MFC시설 건설 추진
연 4000억 추가 영업의 기대



프타 분해설비(NCC)와 달리 나프타는 물론 정유 공정에서 생산되는 LPG, 부생가스 등 다양한 유분을 원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 생산제품인 에틸렌은 중합과정을 거쳐 폴리에틸렌으로 전환되며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쓰이는 비닐, 용기,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공된다. 시장조사기관인 IHS에 따르면

세계 폴리에틸렌 시장 규모는 연간 1억톤으로 전체 올레핀 시장 규모 2.6억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요성장률도 연 4.2%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GS칼텍스의 이번 MFC시설 투자 결정은 최근 정유업계에 불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맞물린 조치로 보인다. 국제유가에 따른 변동성이 큰 기존 정유사업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화학사업을 추가에 시장 상황에 따른 수익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GS칼텍스는 일 79만 배럴 규모 정제시설과 27만4000배럴의 고도화시설, 연간 280만톤의 방향족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사업 포트폴리오가 방향족 공정의 BTX(벤젠·톨루

엔·자일렌)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MFC시설이 가동되면 올레핀 사업으로도 진출, 화학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경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설비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변화하는 사업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균형 잡힌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S칼텍스는 MFC시설과 기존 생산설비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저출산 심화... 유제품 자급률 사상 첫 50% 무너져

작년 출생아 수 40만명 미만
수입량, 국내 생산량 역전

우유와 버터 등 유제품 자급률이 추락하고 있다.

저출산 영향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3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감소했다.

이같은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우유 소비가 줄면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버터, 치즈, 분유 등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50%선이 무너졌다. 1990년대 초 유제품 자급률은

90%가 넘었다. 유제품은 흰우유, 가공우유, 분유, 버터, 치즈, 생크림 등을 말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유가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유제품 생산량은 188만9073t, 수입량은 197만1788t으로 사상 처음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앞질렀다.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이 역전되면서 유제품 자급률은 48.9%까지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유제품 자급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2월은 유제품 수입량이 늘어나는 시기라 이런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유제품 자급률은 1992년

93.5%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곧 내리막 길을 걸었다.

2009년 68.8%를 기록하면서 70%선이 무너진 뒤 2012년 59.9%, 2013년 57.0%, 2014년 55.5%, 2015년 53.7%, 2016년 51.7%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갈수록 우유 소비가 줄면서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난 반면 식생활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치즈와 버터, 생크림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유제품 자급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유가공협회 관계자는 “적정 수준

의 자급률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데 50% 아래까지 떨어진 것은 우려스럽다”며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우유 소비 감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분유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남양유업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매출 타격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8% 감소한 5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670억원으로 5.8%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65억원으로 82.4% 감소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